

제4장 죽음을 알면 자살하지 않는다 1

자살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된 적이 없는 듯하다. 물론 지금까지 정신의학, 심리상담,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간간히 다루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지금, ‘왜 자살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해답이 한시 빨리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죽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생사학의 관점이 효과적일 것이다. 의학이나 심리상담, 사회복지학과는 달리 좀 더 본질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죽음과 자살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기본교육으로서 자살예방 교육이 먼저 실시되고 그 토대 위에서 상담이 실시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본다. 자살하면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는 막연한 희망만을 붙들고 있는 자살 충동자들에게, 왜 자살해서는 안 되는지를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채 한두 번의 상담만으로 마음을 바꾸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는, 자살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자살 충동자들의 기대만큼이나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몇 달 전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갔을 때의 일이다. 서양철학을 전공하는 어느 철학교수가 왜 자살해서는 안 되는가,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살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내게 문제를 제기하여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던 일이 있었다. 사실 서양철학사를 살펴보면 자살을 찬양한 철학자는 물론이요, 실제로 자살한 철학자까지 있다. 철학이란 학문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죽음 문화가 거의 없고 자살률이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철학은 어떤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1995년 한림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해온 이래 내가 학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으며, 철학 대신 생사학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 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자살 사례들을 생사학의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다음 6가지 점에서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자살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 둘째,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 셋째, 자살이 끝은 아니다. 자살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 넷째, 우리에게 자살권이 아니라 인간답게 죽을 권리만 있기 때문이다.
- 다섯째, 자살은 남은 사람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 여섯째,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여섯 가지 점에서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자살은 더 큰 고통을 부른다^{첫 번째 이유}

사람들은 자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사람들이 자살 이후를 전혀 모른다는 데서 시작된다. 자살하면 모든 고통이 소멸되어 버리고 평안해질까? 끝없는 망각과 무(無)만 남을까? 여러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작은 섬유회사 사장 S씨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고 부인마저 경쟁회사의 이사와 함께 달아나 버렸다. 그는 사업을 크게 축소하고 집도 담보로 잡혔지만, 회사를 구할 수 없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그는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으로 인해 좋은 일만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졌다. S씨는 자살하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고, 보험금을 타서 빚도 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기는 사후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자살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고 자살을 감행했다. S씨는 밧줄을 목에 건 채 힘껏 발판을 찼다. 얼마 뒤 그는 병원의 침대 위에서 “오, 정신이 드나” 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눈을 떴다. 자살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가사상태에 있었던 7시간 동안 무서운 사후세계를 체험했다. 그는 현실보다 더 무섭고 괴로운 사후세계에서 구출된 것을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가사상태에서 저렇듯 무서운 꼴을 당했으니까, 정말 죽었더라면... 자살 행위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은 그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¹⁾

2006년 사이버강좌 자살예방 전문과정을 수강했던 어느 노인병원 간호사는 내게 자기 형부의 자살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려준 바 있다.

“1997년 말 IMF와 함께 경제적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그람목손이란 농약을 마시고 가신 형부의 죽음이 뇌리에 사무쳐서 저는 인터넷으로 동영상 수업을 듣다가 속으로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언제나 긍정적이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던 형부에게서 어느 날 무력감과 권태로움과 우울함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형부가 자살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과 간호사는 아니지만 형부의 깊은 우울증 증세를 감지하고는 형부에게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부에게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막연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때 형부는 제게 신세지는 것

1)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 자료집, 『급증하는 자살현상,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 10월 29일, 48쪽.

이 못내 마음이 아프다면서 오늘밤 생각을 해보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병원으로 언니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형부가 산속에서 기침소리가 났는데, 내려오질 않는다”는 전화였습니다.“

“119를 불러놓고 온 산을 수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겨우 형부를 찾아냈는데 형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했지만 농약이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라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간의 입원기간 동안 형부는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후회한다”는 말도 했고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부를 간호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후회와 회한의 눈물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남김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예외 없이 자살 후 가사상태에서 무서운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현실보다도 더 무섭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졸저 『마지막 선물』에서도 소개했던 ‘최면치료기법’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정신과 전문의 김영우 박사는 최면치료기법을 통해 자살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최면치료기법은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좀처럼 낫지 않는 마음의 병을 앓는 환자로 하여금 과거 삶에서의 기억과 감정들을 정리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환자를 괴롭히던 증상들을 크게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최면요법은 역사는 짧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정신과 교과서에 수록되어 공인된 치료방법의 한 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를 장려할 만한 새로운 치료법들’ 중 한 가지로 엄선한 것이므로 객관성과 효과를 믿을 만하다.

박씨는 45세의 남자 환자이며 만성적 두통과 불면, 우울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역시 약물 복용과 상담치료 등을 오래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최면치료를 받고자 했다. 두 번째 최면치료 시간부터 전생퇴행을 시도하여 찾아낸 과거 삶의 기억 속에서 그는 중국의 부잣집 아들의 모습이었다. 어릴 때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그는 스무 살 무렵 아버지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은 후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며 몸에서 빠져나온 그의 영혼은 그렇게 맥없이 생을 마감한 자신의 결정이 큰 잘못이었음을 깊이 느끼고 반성하였으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큰 자책감을 지닌 채 영혼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후 새 삶을 맞이하였으나, 이번 삶의 모습도 과거의 삶과 흡사한 것이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그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큰형과 형수의 손에 자라나며 모멸감을 심하게 겪었다. 경제적으로도 무척 쪼들리는 형편에다 마음의 여유 없이 생활하며 늘 긴장과 불안을 떨칠 수 없었던 탓에 성장기와 청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의 외로움과 위축감, 우울감은 점점 깊어져 갔다. 마치 과거 삶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살며 극복했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 재시험을 보는 것 같았다. 환자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현재의 우울과 무기력이 과거 삶의 자살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이란 것도 과거의 삶에서 소화하고 극복하지 못했던 과제가 연장된 탓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후 몇 번의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환자는 삶의 의미와 영혼의 존재에 대해 눈을 떠가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우울과 무기력감도 서서히 사라졌다. 치료 결과 환자는 현재 삶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만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²⁾

최면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떠올리는 죽음의 기억 중에는 자살로 삶을 마감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경험은 예외 없이 깊은 상처가 되어 현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우울증과 고독감, 위축감과 죄책감은 자살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정신증세들이다. 특히 두 번 이상의 자살 기억을 가진 환자들은 이런 경향을 더 뚜렷이 보여준다. 각자의 삶에 주어진 책임을 참을성 없이 벗어던진 환자들은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품게 되고, 자살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 행위를 후회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배우고 인내해야 할 여러 어려움들을 피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영혼은 후회와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는 원래 감당해야 했던 과제와 함께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도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생사학을 창시한 20세기의 영적인 스승 퀴블러 로스(Elisabeth Kuebler-Ross) 여사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세심하게 보살핌으로써 그 중 단 한 사람도 자살을 택하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었다. 환자들이 병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라면 약물 처방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증을 치료했고, 가족 문제라고 말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우울증 때문이라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존엄성을 지키다가 후회 없이 다음 생을 맞이하도록 돕는 데 있었다.

자살은 아직 자신이 배워야 할 과제를 남겨둔 채 죽는 행위이다. 자살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면 그녀는 다시 상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³⁾

2)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주최, 2006년 가을세미나 ‘자살충동,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자료집, 41-42쪽.

퀴블러 로스에 따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어려움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일종의 과제로서 스스로 수용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라고 한다. 우리의 영혼은 이 과제를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자살을 택함으로써 과제를 마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음 삶에서 똑같은 과제를 만나게 된다. 결국 자살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며, 미뤄진 과제는 죽은 이후에도 계속 그를 따라 다니게 된다. 퀴블러 로스의 말은 최면치료를 통해 밝혀진 것과 일맥상통한다.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피해 자살했다면, 남겨진 영혼은 영영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새로운 삶에서는 원래 감당해야 했던 과제와 함께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의 책임까지도 짊어져야 한다.

존경받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은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3년간이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아내와 부모형제 모두를 잃은 사람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거쳐 마지막으로 두르크하임에서는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매는 등 인간으로서 온갖 참혹한 경험을 했지만, 그는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에도 의미가 숨어있다고 믿었으며, 고통스런 시간을 겪으면서도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는 로고테라피(Logotherapy) 즉 ‘의미치료’라는 분야를 창시해 정신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나는 그 불행한 상황 너머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무의미한 고통으로 보이는 것을 진정한 인간적 성취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그 안에 의미의 씨앗을 품고 있다.⁴⁾

그러면 실제로 자살한 사람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20세기 티베트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소갈 린포체(Sogyal Rinpoche, 『티베트의 지혜』를 저술)의 스승이기도 한 딜고 켄체 린포체(Dilgo Khyentse Rinpoche)는 죽음의 세계를 마치 집 앞 골목길처럼 환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딜고 켄체 린포체는 자살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자살했을 때는 부정적인 업을 따르는 것 이외에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해로운 악령이 달려들어 그의 생명력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하다.⁵⁾

자살은 부정적인 업을 짓는 행위로서 자살자는 해로운 악령에 시달린다고 린포체는 분명히

3) 퀴블러 로스, 박충구 역,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The Wheel of Life』 (가치창조, 2001년), 274쪽.

4) 알렉스 파타코스, 노혜숙 역, 『의미 있게 산다는 것』 (위즈덤하우스, 2005년), 227-228쪽.

5) 소갈 린포체, 오진탁 역, 『티베트의 지혜』 (민음사, 1999년), 601쪽.

말하고 있다. 임사체험자 대부분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아무 고통 없이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꼈고, 빛의 존재가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경험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반면 자살자와 자살미수자들은 행복감이나 편안함, 빛의 존재를 경험하기는커녕 이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만 느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고통을 맞본 자살미수자는 자살을 감행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게 뉘우친다. 혼수상태에서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다가 온 좋게 다시 살아난 자살미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 자살이 실패로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말한다. 자살자들도 최면치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원하던 대로 자살에 성공하자마자 자살한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자살자는 죽은 다음에 빛의 존재를 만나 왜 자살했느냐는 힐책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자살자, 자살미수자의 증언을 임사체험자의 증언과 비교해보면 체험의 내용이 크게 상반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임사체험자들의 이런 증언은 졸저 『마지막 선물』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자살충동자들을 교육한다면 큰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살 동기는 더욱 사소해지고 있고, 누가 자살할지도 사실상 예측 불가능하다. 자살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살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자살은 현재의 생명을 끊고 존재의 상태만을 변화시킬 뿐 결코 더 나은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무서운 고통만 가져와 영혼의 깊은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자살은 일종의 도피로서 성숙한 인격이라면 절대로 취할 수 없는 행동이다. 자살한다고 해서 현세의 어려움이 해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도 없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크고 작은 고통을 겪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해서 그 때문에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무모함 혹은 어리석음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살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두 번째 이유}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세속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사회생활 중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가 대부분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치 자살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라도 하듯 골치 아픈 세상사를 회피하는 도피처로서 쉽사리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살한다고 해서 그가 처했던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자살자는 자살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남아있는 가족에게까지 혹처럼 붙어 다닌다. 누구든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마련이다. 당당히 그 난관을 수용해 극복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와 비슷한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된다. 하지만 최면치료를 통해 밝혀졌듯이,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도망친다면 그가 지난 삶에서 저질렀던 자살 행위는 그의 무의식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죽음 이후까지 따라다니는 빛이 되고 만다.

자살 이후의 일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도망치려는 발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물론 우리는, 기쁨과 고통을 번갈아 찾아오는 삶의 무대에서 되도록이면 기쁨만 누리고 고통은 겪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수용하고 극복함으로써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영혼을 더 성숙시키고 지혜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성공과 풍요로움만을 좇는 사회에서는 경쟁만이 최우선일 뿐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평화로운 삶은 뒷전으로 물러앉게 된다. 타인의 화려해 보이는 성공과 자신의 초라하고 피곤한 처지를 비교하며, 부러움과 질투, 좌절과 분노의 마음을 키워온 결과, 우리 사회는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다.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과 다수의 패배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은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희망의 나라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두렵고 잔인한 곳일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패배한 삶’이라는 철학이 지배하는 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나라에서 자살률이 더 높은 이유는 경제적 생활수준은 높을지라도 사회구성원의 내면생활은 더 황폐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쟁의 강도가 낮고 사회적 실패를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대체로 자살률이 낮다. 이런 문화권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면 더욱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는 생사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실패는 모두 자신이 뿌린 씨앗에서 싹텄고, 그러므로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만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 삶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고 자신과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아무리 괴로운 처지라 해도 자살과 같은 극단적 파괴 행위를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도 하루 빨리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한경쟁의 톱니바퀴에 끼어 죽거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사회적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끊임없이 앞만 보며 나아가다 보니 평소에 죽음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런 이들의 죽어가는 모습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

대학교수로 회사 경영에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오로지 일에만 쏟아 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적으로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는 위암 말기라는 사형선고를 받을 때까지 오로지 세속적인 성공에만 몰입했을 뿐 죽음은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가 한순간에 죽음을 선고받고서 갑자기 공백상태에 빠졌고 그런 상태로 죽었다.

사실, 사회적 성공은 죽음 문제와 별 관련이 없다. 죽는 순간, 우리에게는 단 두 가지 질문만이 주어질 뿐이다. 첫째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둘째 ‘당신은 죽는 순간 마음이 어떠했는가, 평온한 마음으로 죽었는가 혹은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쳤는가?’, 이것이 전부다. 죽음 앞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죽어가는 당사자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는 전혀 묻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인간’ 그 자체만을 물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하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 따위를 찾는 일은 헛고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삶의 세속적 가치는 죽음 문제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소한 일에 평생 매달려 아등바등 살다가 불행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죽을 때 제기되는 두 가지 질문,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며 인간 본연의 삶이다.